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44개 선정

우수 중소기업 집중 육성

전라남도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유달조선 등 44개 기업을 '2019년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3년 이상 전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성, 일자리 창출 노력 등 기업의 유망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3년 동안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2~5

억) 및 우대 금리(0.3~0.5%) 지원과 국내 개별박람회, 수출 분야 지원사업 등 판로 지원 사업에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한편, 2014년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파루는 연 평균 매출액 570억 원을 달성해 2015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성장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기업 투자유치 만큼 중요한 것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안착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천년고찰 백련사' 백일홍 만개

또다시 폭염이 맹위를 떨친 1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산 자락의 천년고찰 백련사(白蓮寺) 만경루(萬景樓) 앞 배롱나무가 핑크빛 꽃으로 화사한 단장을 마쳐 늦여름 정취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 강진=봉채영 기자

여름밤에 떠나는 낭만의 시간여행

군산시 '군산문화재 야행 2차행사'

한 여름밤에 떠나는 역사와 낭만의 시간여행 군산문화재 야행 2차행사가 열린다.

군산시는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해 야간에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인 '2019 군산문화재 야행(夜行)' 2차행사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3일간 진행된 1차 문화재 야행은 군산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재를 개방하고 그 안에서 즐길 프로그



야행개막식 모습

램 및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70여개의 전시·공연·체험 문화콘텐츠가 운영됐다. /전북 군산=봉채영 기자

광주 풍향동 일대 역대급 재개발 아파트 건설 추진

7000억 들여 2900가구 '신도시급'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공고
2호선 역사 인접 대기업을 눈독
정비구역 주택가격 2~3배 상승

광주 북구 풍향동 일대에 2900여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풍향동 600-1번지 일대(구역면적 16만 4000㎡)에 2949가구 규모의 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광주교육대학교 부근의 재개발 예정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역사와도 인접할 예정이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다.

현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옥탑 광고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과 직간접 접촉을 하고 있다.

3000가구에 달하는 재개발 아파트는 광주에서는 최대급이다.

지역건설업체는 사업비가 7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활용한 서구 화정현대힐스테이트(3700여가구) 재건축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알려졌다.

이처럼 '역대급' 재개발 아파트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풍향동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재개발정비구역 내 주택 가격이 2~3배 오를 정도로 관심이 크다"며 "대기업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B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가 남아있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잘 해결돼야 착공까지 순탄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광주 중건 건설업체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양가 규제 목소리와 북구, 동구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는 등 부동산 시장 유동성이 가장 큰 변수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목포해상케이블카 공사 막바지... 9월 첫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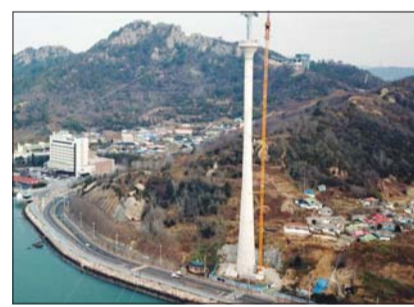
전 구간 메인로프 설치 완료
종합시운전 통해 안전성 점검

전남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의 9월 개통을 앞두고 목포시가 종합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해상케이블카 전구간에 걸쳐 메인로프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이 날부터 종합시운전에 들어갔다.

마지막 공정인 메인로프는 지난 5월 설치과정에서 미세한 풀림현상이 발생해 재시공되면서 공기가 연장됐다.

이번 종합시운전은 승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탑승용



대반동 인근의 해상케이블카 공사현장. /뉴스1

캐빈을 달기 전은 물론 승객을 태웠을 때를 감안해 모래 등을 싣고 캐빈의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어 23일 교통안전공사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고 나면 시승시 등을 거쳐 9월 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공사와 별개로 주차장 2개소와 유달산 소로를 완료했으며, 준공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 목포해상케이블카(주)와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해상 0.82km, 육상 2.41km 등 총 연장 3.23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

승강장 3개소 모두 승·하차가 가능하고 목포 원도심, 유달산 기암귀석, 다도해, 항구 등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해상을 건너는 최대 높이가 해발 155m에 이르러 국내 어느 케이블카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스릴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목포=양수영 기자 ysn6313@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전남도, 민주주의·인권 평화 정신기린다

평화캠프 열고 추모·기념사업

전라남도는 오는 18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6월, 평화의 섬 하의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평화캠프를 열어 시민단체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했다.

오는 17일에는 영호남의 예술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고 영호남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영호남 평화콘서트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인 18일에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서거 10주기 추모식 갖고 10월중에는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및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역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지도자로, 앞으로도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전주시, 광복절주간 주요 공공시설 개방

전주시가 광복절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일간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등 3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시설 무료개방은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고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전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5 | 해질 / 19:29

8월

14일 (수)

음력 : 7월 14일

수도권 날씨

35~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